불교인문학살롱

❷ 붓다의 자유와 흄의 해방



▶**김은중 전문연구원은** 연세대 철학과 및 동대학원 철학과 졸업했으며,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HK연구교수 역임했다.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전문연구원과 '더 수필' 선정위원, '철학수필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흄 "아집서 해방"…붓다 설한 자유와 맞닿아

J는 누구로부터 코로나19에 옮았는가?

지난 토요일에 만난 지인 H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다음 주 수요일에 J에게 문자를 보냈다. J도 그 다음날인 목요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에 두 사람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H는 월요일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으며 J는 월요일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 J는 H로부터 코로나19에 전염되었다고 판단했다. H도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정확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따라 부정될 수 있다.

첫째, J는 그날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면서 H와의 약속장소에 도착했다. 만난 뒤에도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집으로 갔다. 대중교통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로부터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따라서 H가 J를 만나기 전에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돼 있었다고 해도 J가 걸린 코로나19가 H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H가 J에게 코로나19를 옮겼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대중교통에서도 누군가가 J에게 코로나19를 선물했고 H 역시 J에게 코로나19를 선물했어도, J가 걸린 코로나19가 어느 쪽으로부터 감염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셋째, J는 H를 만나기 전에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수 있다. H를 만날 때는 잠복기였다. 다만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 정도이므로, H가 J로부터 감염되어 먼저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J는 하루 늦게 나타났을 수 있다. 오히려 J가 H에게 코로나19를 옮겼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우리는 J가 H로부터 코로나19를 옮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 철학자 데이비드 흄(1711~1776)은 "우리의 모든 앎은 강렬함이나 생생함으로써 느껴지는 '인상(印象)'의 감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인상은 '어떤 대상이 마음에 박히는 느낌'이다. 첫인상이 좋다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뜻, 바로 그것이다.

우리 사유의 모든 재료는 우리의 안과 바깥에서 형성되는 인상(印象)에서 나온다. 인상은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욕구하거나 의욕할 때 일어나는 좀 더 생생한 지각이다. 마음에 최초로 등장하는 우리의 모든 감각, 정념, 감정이다. 우리의 모든 사유나 관념은 그런 인상들의 모사이다.

인상들로부터 생기는 인간의 지식

우리는 상처를 보면 고통스럽고, 하늘에 빛이 번쩍이면 천둥이 칠거라고 생각하며, 천둥이 치면 비가 오겠다고 생각한다. 연예인 W가 광고하는 제품은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생생하거나 강렬한 사태로부터 받은 인상으로 관념으로 만드는데, 이런 관념들이 이성적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각의 관념을 결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우리가 유사한 사물들(유사성의 법칙), 시간과 공간에서 인접한 사물들(근접성의 법칙), 원인과 결과로 연결된 사물들(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두고 축적한 관념들을 결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토요일에 H와 J가 만났고, H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으며, 수요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J는 목요일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생각한다. 이것들은 사실 각각의 인상들이다. 다른 인상들도 있지만 그 인상들은 무시한 채-왜냐하면 이 인상들이 가장 생생하므로- 우리는 이 인상들을 관념으로 만들고는 J가 H로부터 코로나19를 옮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식은 관념들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해가 뜬다는 관념들을 결합해 아침이면 해가 뜬다는 하나의 지식을 만든다. 우리는 관념이 이

우리의 지식은 印象의 감정에 불과
흄 "지식, 경험이 만든 허구의 구조"
불교의 무아론과 유사점 적지 않지만
흄은 고립을 붓다는 연결을 생각한다
그래도 붓다와 흄의 지향점은 동일해



사진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 철학자인 데이비드 흄(1711~1776)의 초상화.

성적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관념의 기원은 사실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상이다. 그렇다면 지식은 이성적인 추론으로써 얻어지지 않고 얼마나 더 그럴듯한가에 대한 개연성에서 얻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인식할 수 있고, 경험에서는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에만 도달할 수 있다. 흄은 "문제에 관한, 곧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모든 추론은 오직 습관에서 발생하며, 습관은 반복된 지각의 결과로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연속적 관계를 필연적 관계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인과 결과는 관념의 일정한 연속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인과 관계에 대한 지식은 추론에 의해서 선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결합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얻어지는 경험으로부터 생긴다." 이것이 흄의 생각이다.

자연의 운행에서는 유사한 대상들이 지속적으로 서로 연접해 나타나며, 정신은 습관적으로 하나를 보고 다른 하나도 출현할 것이라고 추리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연접과 추리,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사물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필연성 전부를 만들어 낸다.

"유사한 대상들의 지속적인 연접이 없다면, 그리고 연접을 보고 나서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 추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필연성이나 연관성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전혀 생겨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이 알고 있는 진리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며 심리적이라고 흄은 생각한다.

우린 영혼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흄은 한발 더 나아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감각뿐이라면, 물질적 실체나 정신적 실체의 실재성을 확언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지식은 현상의 세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 · 실체 · 원인 · 영혼 · 자아 · 외부세계 · 우주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 다음, 흄은 비물질적이며 분리가 불가능하고 사멸도 불가능한 영혼 및 실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유하는 실체'(자아)가 단일하며 분리가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는 확증될 수도 반박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하고 단순한 자아'의 관념을 갖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런 단순하고 지속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경험을 한 적도 없다.

우리의 마음은 "상이한 지각의 다발 또는 모음이며, 이는 파악할 수 없는 속도로 서로 제기하며 영속적 흐름과 운동 가운데 있다. 마음은 몇몇 지각이 계기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지나가고 다시 지나가고 흘러 사라지며 무한히 다양한 상태와 상황 속에 섞이는 일종의 극장이다. 그 안에는 하나의 시점에서 단순성이 없으며 다른 시간들에서 동일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는 단순성도 동일성도 없다. 마음은 어떤 관계에 의해 결합된 상이한 지각들의 모음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완전한 단순성과 동일성을 부여 받았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흄이 주장하는 요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마음은 습관에 따라 하나의 사건에서 다른 결론을 추론한다. 하지만 비슷한 대상의 일정한 연접과 그에 따라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의 추론을 넘어서는, 필연성이나 연관의 개념은 없다. 따라서 흄에서 지식은 인간의 경험이 만든 허구의 구조가 되며, 인성의 실체에 대한 실재성은 확인할 수가 없게 된다.

붓다의 '없다'와 흄의 '알 수 없다'

흄의 이런 주장은 붓다의 무아론과 연결되기도 한다. 아니 우리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 연결하거나 연상하는 습관 말이다. 그러나 붓다의 말씀과 흄의 주장이 얼핏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탐구의 방법에서는 다르다. 만약에 붓다와 흄이 같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흄이 말하는 습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습관으로써 부회(附會)를 저지를 수는 없다.

붓다는 나의 존재가 현상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체로서의 자아는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존재다발인 오온(五蘊)을 설정한다. 색(色) ·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이 그것인데, 존재의 물질적(신체적) 요소(色)와 정신적 요소(受想行識)들의 무리로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에서의 오온을 가리킨다. 흄의 지식론에는 이런 오온이 없는데 인상 · 관념 · 결합 등을 수 · 상 · 행 · 식과 연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람들은 몸을 구성하는 물질(色)과 함께, 정신적 과정인 느낌(受), 지각(想), 형성(行), 의식(識)을 각각 나이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온에 근거하여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세상이고 죽은 후에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온은 모두 공이다. 그것을 제대로 볼 때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 일체의 고통과 액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붓다의 말씀이다.

따라서 오온을 분석하고 관찰하면 자아에 실체가 없음이 드러난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 모든 것은 조건지어지고 상대적이며 상호의 존적이다. 인간 존재는 오온으로 이루어져, 조건에 의해 생성되었다가 조건에 의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일 뿐, 불변의 실체인 자아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아의 실체에 대해 흄은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붓다는 명확하게 '없다' 라고 말한다. 우리의 지식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흄은 인과율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지식은 개연적이라 했고, 붓다는 깨달음이란 연기법을 여실히 보는 것이라 하여 인과를 인정했다. 연기법을 본다는 것은 이 세계의 모든 현상과 존재, 사물들을 개별적인 고립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 관계로 보는 것이다. 흄은 고립을 붓다는 연결을 생각한다. 여기에서 붓다와 흄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렇듯 붓다의 무아론과 흄의 지식론은 다르게 전개된다. 다만 추구하는 목적에서는 닮은 점이 보인다. 흄은 철학적 회의론을 앎으로써 인간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학문을 탐구할 수 있게 되며, 독단과 불합리성으로 가득 찬 논증들과 쓸데없는 고집으로부터 해방된다고 보았다. 붓다는 연기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면 '자아의 비어있음' 으로서의 무아를 깨달아 자신과 타자의 상호 연관성을 경험하면, 세계와의 단절감이 사라지며 이기적 욕망과 공격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보았다. 흄의 해방과 붓다의 자유 사이에는 통하는 점이 있다.



